

##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정원 / 조선일보 / 2026.06.23. (화)

| 순번 |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 분야 | 비고 |
|----|---------------------------------|----|----|
| 1  | AI에 일자리 맡겼다 4대 그룹 고용 감소         | 경제 | 톱  |
| 2  | 등록 말소·벌금도 무시... 불법 국제학교 '배짱 영업' | 사회 |    |

### (1)기사/뉴스요약

국내 경제의 핵심 축이자 전체 대기업 고용의 약 40%를 책임지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의 고용 인원이 일제히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 뒤에 가려진 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퇴직 등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도입 가속화로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력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22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0연구소가 자산 5조원이 넘는 102개 대기업 집단의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기준 고용 인력(임원·직원 포함) 변동을 조사한 결과다. 102개 대기업 집단의 총 고용 인원(약 192만명) 중 4대 그룹의 비중은 38.2%(약 73만4000명)에 이른다. 4대 그룹의 고용 위축이 곧 국내 대기업 일자리 전체의 위축과 직결되는 셈이다.

4대 그룹만 보면 1년 새 1만2300여 명이 줄었다. 국내 최대 고용주인 삼성은 931명이 감소하며, 2017년 이후 7년 연속 이어져 온 고용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SK는 3699명, 현대차는 2375명 감소했고 LG가 4대 그룹 중 가장 많은 5370명이 줄었다. 102개 그룹 전체로는 고용이 0.4%(191만2302→192만472명) 늘어났지만, 지난해 직원 수 1만여 명의 아워홈이 한화그룹에 편입된 효과를 제외하면 감소세였다. CX0연구소 측은 "대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쿠팡만은 예외였다. 쿠팡과 계열사 직원은 최근 1년 새 총 8250명 늘어, 아워홈 인수 효과가 반영된 한화(1만4324명 증가)를 제외하면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다. 쿠팡은 지난해 처음으로 총 고용 10만명을 돌파(10만8131명)하며 SK그룹(10만4602명)마저 제쳤다. 국내 그룹 고용 순위도 삼성-현대차-LG-쿠팡 순으로 재편됐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는 줄고 플랫폼 기업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요점: 전체 대기업 고용의 40%를 책임지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의 고용 인원이 감소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도입 가속화로 신규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2)기사/뉴스요약

광주광역시에 있는 A어학원은 오전 9시부터 초·중학교 학생들로 북적인다. 영어와 중국어부터 국어·수학·역사·컴퓨터 등 각종 수업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싱가포르 국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어학원은 블로그에서 'A그룹은 현재 9개국에서 약 30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이처럼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온종일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작년 11월 A어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한달 뒤엔 이곳 원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2일 본지 취재 결과, A어학원은 현재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어학원은 교육청의 '등록 말소' 처분 예정 통지 직후 행정심판 청구로 시간을 끈 데 이어, 지난 4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청의 '등록 말소' 처분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은 새로운 입학생도 계속 받고 있다. 기자가 최근 A어학원에 입학에 관해 문의하면서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아는데, 문 닫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학원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악의적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학원이 폐업해야 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캠퍼스도 마찬가지다. 학교처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하면서,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8개 명문대학)에 학생을 보낸다'고 홍보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뿐 아니라 학원 등록도 안된 '미인가 불법 시설'이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2022년 이곳을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벌금만 낸 뒤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다.

이런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가 교육청의 제재에도 버젓이 운영하는 건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 시설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교육청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다. 또 학생들로부터 받는 연 교육비 수입만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벌금이 부과돼도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올 4월 교육부는 계속 방치돼왔던 미인가 불법 시설을 제재하는 방안을 새로 발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수 조사도 진행했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A어학원과 B캠퍼스 같은 불법 국제학교는 전국 97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86%(서울 33·경기 39·인천 11곳)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1년에 최대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들 때문에 기존 벌금과 신설된 이행 강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들도 현재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요점: 학교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가 전국에 97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교육청의 등록 말소·고발 조치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일키워드

| 순번 | 키워드     | 설명   | 출처     |
|----|---------|--|--------|
| 1  | 초과이익성과급 | 회사가 연초에 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전에는 PS(Profit Sharing)으로 불렸으며 매년 1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소속 회사의 연간 경영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 시사상식사전 |
| 2  | 좀비담배    | 의료용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불법적으로 함유된 전자담배를 일컫는 말이다. 사용 시 신체 경직, 의식 소실 등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작용으로 마치 '좀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 시사상식사전 |